



◆ [Focus]

- (CFIUS) 외국인투자위원회(CFIUS) 심의 강화 정책 개요

◆ [What's News]

- (IRA) EU, 미국과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TF 회의 개시
- (반덤핑·상계관세) WTO 사무국, 무역 구제 데이터 포털 출범
- (무역협정) 미국-대만, 첫 무역 이니셔티브 협상 예정
- (대러제재) G7,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상한제 적용

◆ [Top Headlines]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FOCUS

[CFIUS] 美 외국인투자위원회(CFIUS) 심의 강화 정책 개요

가. 배경

- 美 재무부는 'CFIUS 집행 및 처벌에 관한 지침'을 공개(10월 22일)
 - '75년 CFIUS 설립 이후 최초로 외국인 투자 심의 위반처벌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언론의 관심 집중
- 앞서 9.15 바이든 대통령은 CFIUS 집행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
 - 상기 2개 조치 모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

나.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 주목받는 CFIUS

-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, 즉 CFIUS(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)는 연방 부처 합동 위원회(inter-agency committee)로서 국가 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를 규제 감독하는 기능 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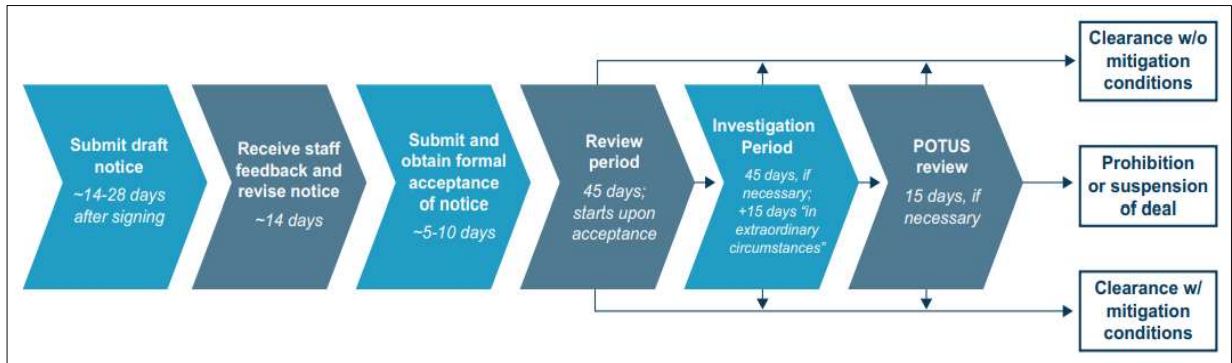
-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직(chair)을 맡고, 국방부, 국무부, 상무부, 국토안보부 등 16개 부처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CFIUS 운영에 관여
- '75년 당시 포드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CFIUS를 신설, 최초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시 기능 도입
- '80년대 일본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 열풍(일본 후지쓰社의 미국 페어차일드 반도체 인수 등이 불자,
 -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 의회는 법률(Exon - Florio Amendment 1988)으로써 행정부(즉 CFIUS)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투자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
- '18년 트럼프 정부 당시 외국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(FIRRMA :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) 통과로 CFIUS 예산·인원 확충 및 심의 대상 확대 등 제도 개혁 성공
- CFIUS 심의 분야를 핵심기술(T : Critical Technologies), 핵심 인프라(I : Critical Infrastructure), 민감 개인정보(D : Sensitive Personal Data)와 같은 일명 'TID 사업' 관련 외국인 비지배적 투자(non-controlling investment)로 확대
 - 과거에는 지배적 투자로 제한됐던 CFIUS 심의 분야가 이제 벤처 투자 등 간접 투자로까지 확장
- 중국 정부를 배후에 둔 중국계 투자 자본이 미국 기업의 지분 인수를 통해 첨단기술을 획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평가
 - 로디엄 그룹(Rodium Group) '중국 투자 모니터링'에 따르면 FIRRA 이전인 '16년 최고 320억 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전략적 인수 투자(Strategic Acquisition)가 법 통과 후 37억 달러('19년)로 10배 가까이 급감
- 올해 2월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위원회(NSTC)는 국가 안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핵심 및 신흥 기술(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)에 해당하는 19개 산업을 선정해 규제 대상 확대
 - * 첨단 컴퓨팅, 첨단소재공학, 첨단가스터빈엔진기술, 첨단 제조업 등

다. CFIUS 심의 대상 및 절차

- (대상) CFIUS 심의 대상은 (1) 외국인이 미국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거래, (2) 외국인이 TID 사업 관련 미국 기업의 소수지분을 취득하는 거래(minority investment), (3)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거래로 구분
 - 해당 투자 거래 시 미국 기업 및 외국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(voluntarily) CFIUS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 - 하지만,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에서는 거래 종결 최소 30일 이전까지 신고할 의무가 발생
 - * 첨단 컴퓨팅, 첨단소재공학, 첨단가스터빈엔진기술, 첨단 제조업 등
 - 첫째, 외국 정부가 상당한 지분 보유 시
 - (1) TID 관련 투자 거래일 경우, (2)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기업 지분 25% 이상 취득하는 경우, (3) 외국 정부(영국, 캐나다, 호주 제외)가 해당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을 49% 이상 보유한 경우, 모두 해당 시
 - 둘째, 핵심기술 수출의 경우,
 - (1) 미국 기업이 핵심기술(critical technology)의 생산·설계·테스트·제조·개발 등을 수행하는 경우, (2) 해당 핵심기술이 미국 당국의 수출 및 재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핵심기술이 이전되는 경우, 모두 해당 시
- (절차) 외국인 투자자 및 미국 기업은 정식 또는 약식 신고 선택 가능
 - 정식 신고서(notice)를 접수하면 CFIUS가 4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하며, 필요시 45일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(특수 정황 포착 시 15일 기한 연장)할 수 있음.
 - 약식 신고서(declaration)로 접수하게 되면, CFIUS는 30일 이내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함.
 - 하지만 이 경우에 CFIUS가 정식 신고서(notice)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, 필요하다고 판단 시 CFIUS가 사후 심사를 통해 거래취소를 명령할 수 있음.

- CFIUS 심의 결과 해당 거래의 국가 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, 권고문(formal recommendation)을 통해 대통령에 최종 결정 의뢰
 - 권고문 접수 후 15일 이내 대통령은 해당 거래에 대한 승인(clear), 중단(suspend), 금지(prohibit) 또는 부대조건(imposing condition) 판단
 - 하지만, 많은 경우에 대통령 결정까지 이르기 전에 CFIUS가 거래 당사자에게 자진 거래취소 또는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하도록 관여

<CFIUS 심의 절차도>



[자료 : Latham & Watkins LLP]

라. 재무부 CFIUS 투자 심의 위반처벌 규정 강화

- ‘CFIUS 집행 및 처벌에 관한 지침’에는 투자 심의 위반 행위를 △의무 신고서 미제출, △CFIUS의 시정명령 등 불이행, △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
 - 만약 기업이 의무 신고 규정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, CFIUS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미국 기업에 최대 25만 달러 또는 전체 거래금액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민사금전벌*(civil monetary penalty)을 부과할 수 있음.
 - 고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위반 건수 당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.
- CFIUS 심의는 거래 당사자 신고에 기반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, 3자 또는 공공의 제보에 따른 수사 착수 및 영장 청구의 권한을 CFIUS에 부여함으로써 조사의 자율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음.

마. 바이든 정부 CFIUS 집행강화 행정명령(E.O.14083)

□ 행정명령(9.15)은 기존 CFIUS 권한을 확대하지는 않았지만, 강화된 국가 안보 평가 기준(Criteria)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

○ 이번 행정명령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 국가 안보 심의에서 중대하게 고려할 판단 근거(factor)를 다음과 같이 명시

- (1) 공급망 탄력성에 미칠 영향 (국방 및 비국방 분야 포함)
- (2) 미국 기술 리더십에 미칠 영향 (극소전자공학, 인공지능, 바이오테크 및 제조, 퀀텀 컴퓨팅, 첨단 청정에너지, 친환경 기술 등 분야 전반)
- (3) 전체 산업 동향에 미칠 영향 (개별 투자 거래가 전체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까지 판단)
- (4) 사이버안보 위협성 영향
- (5) 미국 개인 민감 정보(sensitive data) 침해 영향

□ 백악관은 동 행정명령을 통해 투자의 규모(size)가 아닌 기술의 성격 (characteristics)을 외국인 투자 심의 평가 기준으로 삼게 됐다고 자평

○ 이로써 CFIUS는 특정 기술을 사전 지정할 필요 없이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만으로도 외국인 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재량권 확보

* 자료 : 백악관, 로펌 Gibson Dunn (10.21), Latham & Watkins (11.1) 등

□ (IRA) EU, 미국과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TF 회의 개시

- 미국과 유럽연합(EU)이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관련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(TF) 첫 회의 개최
 -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EU 집행위원장 비서실 중심으로 구성된 TF가 **매주 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IRA 내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계획**
 - IRA 내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,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EU측은 유럽산 전기차를 북미산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 요청 중
 - 아울러, 미 재무부의 IRA 인센티브 시행규정에 관한 의견 수렴을 마감(~11.4), 우리나라 역시 **FTA,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하며** 1) 차별성 완화 방안 요구, 2) 배터리 요건 구체화, 3)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등 의견 제시

* 자료 : 로이터(11.3), 산업부 보도자료(11.4)

□ [상계관세] WTO 사무국, 무역 구제 데이터 포털 출범

- WTO 사무국은 회원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무역 데이터 포털을 출시(11.1)
 - * Trade Remedies Data Portal (<https://trade-remedies.wto.org/en>)
 - 이번 포털은 회원국의 무역 구제 조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목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보급을 개선을 위한 OTDI (Open Trade Data Initiative)의 맥락에서 개발
 - 새로운 포털은 **WTO 회원국이 발표하는 모든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, 테이블 및 사용자 편의로 활용이 가능한 그래프 형태로 표시**
 - 현재 2020년 1월 1일 이후 발효된 반덤핑 및 상계 조치에 대한 정보 공개

* 자료 : WTO(11.1)

□ [무역협정] 미국-대만, 첫 무역 이니셔티브 11월 8~9일 예정

- 美무역대표부(USTR)에 따르면 미국-대만 무역 회담은 11월 8일~9일 뉴욕 개최 예정
 - 무역 촉진, 우수한 규제 관행, 강력한 반부패, 국유기업의 왜곡된 관행 해결 등을 11개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.
 - 미국은 지난 6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를 출범시키며 미국-대만 무역 이니셔티브를 개별적으로 구상했으며, 이어 8월에는 양국 간 협상 안건(negotiating mandate)을 발표한 바 있음.
 - 현지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협상에 적극적이며 11개 분야의 협상 안건 중 일부라도 연내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발표

* 자료 : 인사이드트레이드(11.3)

□ [대러제재] G7,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상한제 적용

- G7과 호주는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정유 제품을 제외한 원유에 가격상한제 도입 합의
 - 미국은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고정된 가격상한제를 도입, 가격상한제 동참국은 차후 러시아산 원유 구매 시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구매를 거부할 전망
 - * 러시아산 원유 가격은 추후 최종 결정(블룸버그 40~60달러, 로이터 63~64달러 전망)
 - 본 조치는 러시아에서 원유를 선적하는 첫 구매에만 적용되며 러시아산 원유를 타국에서 재판매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.
 - G7 및 동참국은 이번 조치로 러시아의 재정 수입을 압박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안정 및 안정적 원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
* 자료 : 로이터(11.4)

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Wall Street Journal	Jobs Report Shows Payrolls Grew 261,000 in October (10월 일자리 261,000 증가, 2020년 12월 이후 최저 증가치) https://www.wsj.com/articles/october-jobs-report-unemployment-rate-economy-growth-2022-11667516355
The Washington Post	How a pro-Trump youth group remade the Arizona GOP, testing democracy (찬트럼프 청년그룹이 아리조나주와 민주주의를 시험하다)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politics/2022/11/04/arizona-gop-turning-point-usa/
New York Times	Midterms Live Updates: Both G.O.P. and Democrats Seize on Jobs Report (10월 일자리 보고서가 중간선거 직전 민주당과 공화당에 미치는 영향) https://www.nytimes.com/live/2022/11/04/us/election-midterm-news-voting
CNN	South Korea scrambles fighter jets after detecting 180 North Korean warplanes, military says (한국 군은 북한 전투기 탐지 후 전투기 출격, 긴장감 고조) https://www.cnn.com/2022/11/04/asia/north-korea-south-korea-warplanes-friday-intl-hnk/index.html
USA Today	Details emerge in Paul Pelosi attack: A break-in, conversation, 911 call, then violence (펠로시 상원의장 남편에게 일어난 폭력사건의 진상) https://www.usatoday.com/story/news/politics/2022/11/04/paul-pelosi-attack-details/8258324001/

Notice

주요 경제통상 일정

※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에 공개됩니다.

□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- (자료발간)

미국 22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에 따른 경제 전망(US22-42)

미국 바이오 방어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(US22-41)

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경과 및 우리 수출영향 분석(US22-40)

미국 산업안보국(BIS)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주요내용 및 현지반응(US22-39)

코로나 19 이후 미국 제조업 혁신 움직임(US22-38)

바이아메리카 정책 후퇴로 본 IRA 전기차 전망(US22-37)

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(US22-기획4)

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(US22-기획3)

- (인터뷰) 미국 상공회의소 Charles Freeman 선임부회장 인터뷰 업로드 예정(11월 10일)

매릴랜드주 래리 호건 주지사 인터뷰 Youtube 업로드 예정(11월 7일)

